

청소년들이 입을만한 책

출판협회 선정 이달의 청소년도서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김낙준)가 선정하는 '이달의 청소년도서' 92년 8·9월분으로 다음 7종(7책)의 도서가 선정됐다. 분야별로는 철학(1종) 과학(1종) 역사(2종) 문학(3종). 재단법인 한국출판금고(이사장 정진숙)는 총 8백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선정도서 1종당 약 300부씩을 구입, 전국 각 지방의 공공도서관 132곳을 비롯, 청소년 선도기관·소년원·지방문화원 등 300곳에 기증했다.

한국인의 상징세계

구미례 지음



수천년의 역사를 거쳐 형성된 유·무형의 우리문화 속에 깃들여 있는 상징세계를 유형별로 분류해 엮은 책. 우리 주위에 산재해 있는 무수한 대상들을 '인연종자'로 구분짓는 저자(우리문화연구원 연구위원)는 이들을 수, 색, 꽃, 산, 새, 호랑이, 소, 용의 8가지로 나눠 각각의 대상물에 내재된 상징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이라는 숫자는 음양의 조화가 완벽하게 이뤄진 숫자로 '완성된 하나'라는 강력한 상징성을 띠고 있다는 점과, 감정표현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는 우리민족의 기질과 자연에 동화하고 귀의하려는 심성으로 인해 흰옷을 좋아한다는 점 등이 저자가 밝히는 한국인의 상징세계에 속한다. 우리민족의 얼과 문화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이 책은, 우리 것에 내재된 상징성을 풀어주는 역할을 한다.

교보문고/A5신/266면/5000원

우리나비 백가지

구정환 지음 / 이원규 사진



우리나라 전지역의 산과 들, 숲에 퍼져 사는 260여종의 나비 가운데 1백종을 선정해, 이것들의 생생한 모습을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1백여장의 컬러사진과 함께 생태·습성·형태·색깔·분포·나타

26 출판저널

나는 시기 및 이것들에 얽힌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들을 상세히 설명한 우리나라비백과. 이전의 나비도감류와는 달리 생동감 넘치는 현장사진과 애벌레로부터 성충에 이르기까지의 나비의 생태와 습성 등 생활사에 관한 것을 빠짐없이 충실히 소개한 보기드문 장점을 지닌 책으로, 비전문가를 위한 서술과 구성으로 짜여져 있어 더욱 값진 면을 보이며, 나비와 관련된 속담과 설화 등도 실어 흥미롭다. 저자는 한국곤충학회 회원으로 그동안 「한국산 나비의 역사와 일본 특산종 나비의 기원」을 비롯한 나비관련저서를 여러권 상재한 바 있다.

현암사/A5신/342면/9000원

고라

R. 타고르 지음 / 유영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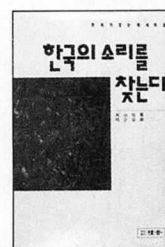


인도의 詩聖으로 불리는 타고르의 대표적 장편소설인 이 작품은, 새롭게 등장한 지식층의 사회의식과 지적 각성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있던 인도 근대사에서 어떤 의미를 지녔던 가를 보여주는 서사시로 읽힌다. 타고르가 만들어낸 고라는 외세의 굴레로 인해 신음하는 인도를 구할 희망이었으며, 조국의 시련과 암흑을 떨쳐버릴 사회개혁과 국민개조의 한 전형이었다. 작가가 겪은 뼈아픈 경험을 통해 창조된 고라는 타고르가 몸부림치며 갈망했던 영웅에 다름 아니었다. 권말에는 번역자(연세대 명예교수)의 작품론이 실렸다. "고라의 세계성과 민족성은 나라와 시대를 초월하여 길이 어필한 뛰어난 인간형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게 역자의 말.

범우사/A5신/544면/7000원

한국의 소리를 찾는다

최승범 지음 / 백순실 그림



「관화가 있는 에세이집」이란 부제가 말해 주듯 글의 내용에 알맞은 관화를 곁들인 수필 모음. 전북대 국문과교수이면서 시인인 저자는 이 한편의 책에서

그동안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점차 잊혀져가는 정겨운 소리를 시인의 예민한 감성으로 모아 들려준다. 메뚜기소리, 지게목발소리, 화선지 붓가는 소리, 나룻배 노젓는 소리, 싸리비질소리, 물레소리 등과 같은 "진정, 사라져서 아쉬운 소리, 그리운 소리"에 대한 작가 자신의 어릴적 체험의 기억을 더듬어 아름답기 그지없는 수필을 지어내고 있어, 웅색하기까지 했던 그 시절의 가슴저미는 아련한 소리를 회상하게 만든다.

예음/A5변형/254면/6000원

생명을 관장하는 복두칠성

최운식 지음



현재 한국교원대학교수로 그동안 민담과 신화에 관한 연구서인 「충청남도 민담」 「한국의 민담」 「한국의 신화」 「한국설화연구」 등을 펴낸 바 있는 저자가 한국인은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구명한 책. 한국인의 생사관을 설화와 고소설 속에서 찾아내고 있는 저자는 「심청전」 「김학공전」 「삼자원종기」 「삼생록」 등의 작품들을 통해 주제를 다루고 있다. 「사람의 생명은 어디서 왔나」 「사람의 수명은 누가 관장하는가」 「영과 육의 결합의 분리에 따른 삶과 죽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나」 「죽어서 가는 곳은 어디인가」를 소주제로 했다. 한국인만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속의 생사관이 어떤 것인가를 확실하게 구명한 이 책은, 학술서적의 딱딱한 형식을 벗어나 있다.

한울/A5신/254면/4800원

李舜臣과 히데요시

가타노 쓰기오 지음 / 김택수 옮김



일본의 르포라이터로 30여년 동안 민속학적인 유려한 기행문을 발표해 명성을 얻은 저자가, 임진왜란의 두주역이었던 토요토미 히데요시와 이순신장군의 인품과 전쟁전과 전쟁기간 동안의 행적 등을

밝힌 책. 가난한 농군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본 통일의 밑거름을 마련했던 오다 노부다가의 충신이 돼 끝내는 최고의 권력자로 조선침탈을 시도했던 히데요시와 30세가 넘어 무과에 합격, 남들보다 늦은 출발을 했으나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제작해 히데요시의 침략을 막았던 명장 이순신을 새로운 시각에서 조명한 이 책을 통해, 전란 전의 양국의 정세서부터 후기해전에 이르는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다. 저자는 거센 일본군의 침입을 결정적으로 막게된 원인이었던 거북선 제작과 전술에 두개의 장을 할애해 집요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광명당/A5신/340면/4700원

삶과 일

김태길 외 지음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가치관과 직업윤리의 혼돈을 철학적으로 해석한 책으로, 집필자들은 사회윤리 일반과 관

련시킨 직업윤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모두 4부로 나눠 1부에서는 삶의 문제 전체를 폭넓게 다루었고, 2부에서는 '일'이 '삶'에 있어서 갖는 의의와 일의 바람직한 모습 및 그렇지 못한 모습을 조명했다. 이어 3부에서는 직업윤리에 관련된 여러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4부에서는 현대인들을 위한 사회윤리의 기본문제를 고루 언급했다. 다분히 난해한 철학적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씌어져 있어 청소년들의 철학적 사고와 직업관 정립에 도움을 줄만한 책으로 읽힌다.

고려원/A5신/258면/3800원